



NEWS FROM NAMHAN RIVER



남한강 여주소식

9월

www.yj21.net

제 128호 2013년 9월 1일

발행인 / 여주군수 편집 / 기획감사실 주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 Tel / 031)887-2063 Fax / 031)887-2462



2013. 9. 23 118년만에 **여주시**로 승격합니다

조선시대 시(市)인 여주목(牧)에서 군(郡)으로
강등(1895년)된지 118년만에 여주시로 승격됩니다
여주목(牧)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살기좋고 찾아오는 여주로 비상하겠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 INDEX

특별기획 ▶ 2면~4면
「여주시 출범, 시민화합, 남한강의 비상」
김춘석 군수 특별 인터뷰
특집 ▶ 4면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 출범하다

일림마당 ▶ 6면
여주도자기축제에서 '점시를 깨자'
정보마당 ▶ 7~8면
여주시 출범 기념한 풍성한 문화 행사 정보
의정소식 ▶ 11~12면
여주군의회 수해복구 지원 ·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알림

남한강 여주소식은 여주군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반상회보입니다. 이 소식지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여주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주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 TEL : 031)887-2063
▶ E-mail : hhswh8899@yj21.net





특별 인터뷰



김춘석 여주군수

2013년 9월 23일 역사적인 '도농복합여주시'가 힘찬 출범을 하게 된다.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지 118년 만에 옛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 남한강을 받판으로 '문화·관광·레저·휴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여 경기 동부권에서 가장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여주시 출범을 맞이하여 그동안 밤낮없이 뛰면서 '시 승격'을 추진해온 김춘석 군수로부터 소감과 향후 과제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도농복합 여주시 출범이 갖는 의미는?

여주 역사의 유래는 475년 고구려 장수왕 때 현재의 여주읍이 골내근현이라는 공식적인 지방행정기구로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여주는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금사면 이포리에 백제의 술천성이 사료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강 동쪽 대신면 천서리에 위치한 신라의 파사성도 잘 보존되어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여주는 서기 1469년 예종 원년에 세종대왕님의 능침이 현인릉에서 여주로 천장(이장)해 오면서 여주는 여흥도호부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市)에 해당하는 '여주목(牧)'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렀으며, 조선시대 전국의 20개 목(牧) 중에서 경기 동남부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면서 주변지역을 아우르고 번영의 시기를 누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1895년(고종 32년) 여주목이 여주군으로 강등되면서 충주부의 속군으로 재편되었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4개의 군(縣) 전, 가평, 양평, 여주중 하나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9월 23일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지 꼭 118년 만에 옛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고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도농복합 여주시'로 출범하여 힘찬 번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출범!

시민 화합,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 승격을 이루어낸 감회와 소감은?

여주시 출범을 맞이하여 저는 평소애 갖고 있는 소신처럼 "말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에 맡기는 자세" 즉,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문구를 되새겨 봅니다.

여주시 승격 문제는 지난 2008년 추진되었지만 당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정책' 추진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굳은 의지를 믿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지난해 5월 시 승격 계획을 짜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에서 농어촌 특례입학 제외, 일부 도시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축소 등이 뒤따르면서 우려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세금인상 등)에 대하여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반상회 등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민간 주도로 '여주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리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주시 승격은 모든 주민들이 다함께 축하하고 화합하여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었기 때문에 주민 참여와 협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시 승격에 대한 주민과 관련기관의 적극 지원...

주민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0일 군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한달 여 후인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 설치 여론조사를 1차로 실시했을 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이 80%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찬성 60.8%, 반대

는 32.9%가 나왔습니다.

주민 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해 2차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61.1%의 찬성을 얻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주민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주시 승격'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주군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큰 힘을 얻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저는 힘이 났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여주시 승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면서 국·과장을 비롯한 장·차관 면담 등 정말 열심히 찾아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밤낮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숨 막히는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6일 '여주시 설치 법률제정안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그 이전에 '국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 "어떻게 해서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겠다."는 생각 밖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듯이 노력의 결과는 지난 3월 26일 '여주시 설치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 의결' 및 '동법안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이 5월 7일 이루어지면서 정말 큰 감격과 보람을 11만 군민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최종 지난 6월 4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제 11850호로 '도농복합 여주시' 설치 법률이 공포되면서 '도농복합 여주시'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주시 승격은 새로운 출발점...

‘여주시 승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좀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근을 위해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시 승격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주시가 탄생했는데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주시 승격’을 계기로 그동안 반대하셨던 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여주시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시 승격을 시작이라고 했는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전략을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따라붙는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촌 특례입학 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여주교육의 체질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기 실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억원씩 5개년 간 150억원을 투자하여 45개교(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9곳)에 대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호하여 지난해부터 대비 지원이 증단되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나, 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주를 건인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비전 2025 여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014년 3월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계획은 역사적인 여주시 출범에 대응한 도시 발전 전략과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기게 됩니다.



이 계획의 수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예산이 반영 되도록 알차게 수립하여 여주의 특색 있는 장기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발굴해 내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여주가 창조적인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촌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웰빙휴양도시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는 보물 18점을 비롯해 국보 4호인 여주고달사지 승탑을 비롯한 83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며, 골프장(22개소, 3개소는 공사중)뿐만 아니라 경기 동남부에서는 최초로 특1급 관광호텔인 컨밸리호텔이 자리 잡고 있고, 내년 말 증축이 완료되면 아시아 최대가 되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250여 점포)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위한 ‘여주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여주를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발전 속도를 높이면 편리한 교통과 물류 및 사람의 왕래가 늘어나야 하는데,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2016년 개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가 완공이 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여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왕래가 많아지고 또 편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동고속도로에서 여주로 들어오는 여주나들목과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된 서여주, 남여주, 북여주 나들목이 개통돼 운영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흥천과 대신 나들목이 더 생기고, 동여주 나들목도 스마트 나들목으로 계획돼 있어 우리 여주는 무려 7곳의 나들목이 생겨나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는 물론 교통이 원활하여 관광객의 유입과 기업 유치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농촌과 도시가 고르게 발전하고 장기적으로는 풍요롭고 행복한 곳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 인구가 유입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되며, 기업이 들어오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여주시’의 이미지는 크게 바뀌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시 출범은 여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것이며 우리 후세들이 더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해택 보다는 먼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주시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군 지역이라는 좁은 틀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부터는 ‘여주시’라는 넓은 안목으로 여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직자부터 마을자세를 가다듬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냐를 생각하며 행정서비스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 또한 선진 시민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다함께 잘 사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떨지 않은 시기에 인근의 발전된 도시들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 매우 특성화된 ‘여주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그 동안의 패쇄적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주시로 새롭게 개칭하는 행정조직은 여주읍이 3개 행정동(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분리되고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이제 잘 출발하는 여주시의 기초는 100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잘 사는 농촌과 도자산업의 육성...

저는 항상 농업 관련 행사장에 가면 농민여러분께 시골에서 농사지어서도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대학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낼 수 있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며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강소농(強小農)을 중점 육성하고, 탑 리이스 단지를 확대해 여주 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농협통합 RPC를 건립, 운영하여 품질향상을 기하는 등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2차, 3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농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고구마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주말농장 26개소를 운영중이며, 주말농장은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과 연계하여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쳐 여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중구와, 송파구, 동대문구 등에 직거래전터를 연중 개최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여주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왕실진상담에서 생산한 '신 여주 자채쌀'을 독자 브랜드로 출시해 대도시의 유명백화점에서 히트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진상미의 고장으로서 여주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를 중앙도에 여주 지역의 생산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도요번개시장'을 개설해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특성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발전과 함께 여주의 핵심적인 산업인 도자산업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하여 신탁사관광지 내에 운영중인 '도자세상'에서 연중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도예작품을 선보이며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자 디자인 개발, 가벼운 도자기 생산기술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여 여주의 전통산업인 도자산업에 대하여 제2의 부흥기를 열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주도자기축제'와 격년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어 여주 천년도자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여주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운영중인 '접시끼기' 행사를 특성화 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참여와 흥미를 유발시켜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판매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지역 400여 도자기 공장의 판로 개척과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주 도자백화점' 건립을 추진하여 도자기업체들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 도자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는 디자인 개발 고도화, 마케팅 전략 구축,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여주 도자 문화센터'를 건립, 여주시 출범과 더불어 도자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

특히 다변화 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여성회관과 여주도서관이 새로 구축되어 평생 학습과 교양증진 등 선진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해 운영중이며, 노후 경로당도 '12년에 59개소, 금년에 65개소를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한편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 각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등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선진 장사시설을 갖추기 위해 '공원형 자연장'을 가남면 본두리에 마련하여 올 12월에 착공하는 등 복지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주를 주민 중 도시구역에 거주하는 7천 300여세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23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시가 된 다른 시 지역 주민들도 이 과정을 거치며 극복 했듯이 우리도 잘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시 승격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포함한

1,600여명의 복지수혜 대상자가 새로 늘어나 23억 원의 추가지원이 있게 되는데, 향후 국비 지원 등의 증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빈영과 화합의 여주를 위하여...

또한, 시 설치로 문화와 교육 등 도시적인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여주만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여주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도시민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여주 삼교 및 가남 본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등 여주시를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옛 영광과 명예를 되찾아서 정말 살기 좋은 여주, 외지 분들이 찾아와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여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23일이면 여주군의 모든 흔적은 역사 속에 남고 희망찬 '여주시'가 11만 시민과 함께 출범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역사를 발판으로 더 발전되는 여주, 더욱 힘차게 번영하는 여주시를 위하여 모든 주민이 화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님의 뜻 단장함에

—새 여주 기리다

이 범 관

님의 뜻을 가슴하여 팔도를 좁히는지 아름다운 보(狀) 세워 물 걱정 떨어내고 새 깃발 높이 들어서 명품 고을 꾸민다.

도회 농촌 맞잡아 큰 꿈을 그려내니 여강은 착한 삶터 달빛까지 찬란해 큰 이름 너울을 따라 힘차게 펼쳐지리다.

- 경기 여주 출생
- '수필문학', '문학시대' 등 단, 수필문학추진작가회, 시대시 회원
- 수필집, 시집, 시조집, 기행수필집 등 다수





여주시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9월 23일 '여주군'은 역사 속에 남고 새로운 '여주시'가 탄생해 남한강에 기반을 두고 힘차게 날아오른다.

옛 여주목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되살리고 문화와 관광 및 레저를 기반으로 한 휴양도시로 변모하는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옛 여주목이 수로를 통하여 번영했던 것처럼 지금은 2015년 개통될 성남~여주간 수도권 복선전철, 2016년 완공목표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이미 개통돼 활용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철과 육로 교통수단이 새롭게 건설돼 사람의 왕래와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신생 여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여주시로 승격되면 행정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기존의 여주읍사무소는 3개동으로 분리되어 어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새로 생겨나는데 **어흥동 주민센터**는 기존의 여주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는 하리에 있는 별관(구 여주군보건의사), **오학동 주민센터**는 현재의 오학출장소를 사용하게 된다.

어흥동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곳은 상동을 비롯해 흥분동, 매봉동, 연양동, 신진동, 단현동, 우만동, 덕곡동, 능현동, 점봉동, 삼교동, 하거동, 상거동 등이고, **중앙동 주민센터**의 관할지역은 하동, 창동, 교동, 월송동, 가업동, 연라동 일원이며 **오학동 주민센터**가 맡는 지역은 오학동과 현암동, 천송동, 오금동 일원이 포함된다.

한편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하여 주민생활과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기존의 여주읍에서 맡아보던 일부 가족관계 업무는 여주시청에서 처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증명 발급(지방세 포함), 주민등록신고, 인감등록, 사

망·출생신고 등 민원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장애인 등록 및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등 복지 분야도 서비스 한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등 환경 분야와 동 체육공원 사용허가, 시설 보수 및 유지, 사용자 징수 등에 관한 업무도 **동 주민센터**에서 맡는다.

한편 기존 여주읍에서 실시했던 업무중 가족관계 등록, 지방세신고, 농지전용신고 업무는 여주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된다.

주소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울러 주소표기 방법도 변경되어 활용되는데, 현행 여주군청의 경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로 돼 있지만 변경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흥문동)으로 표기하면 된다.

또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변경되어 기존에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로 56이였으나 변경 되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이 되어 '면'을 '읍'으로만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각 면의 경우는 기존에 경기도 여주군 00면 0



0로 154 이지만 변경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00면 00로 154로 **'여주시'만 변경하여 활용**하면 된다. 즉 행정동인 '어흥동', '중앙동', '오학동'은 주소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주시 상징 통합브랜드 새롭게 탄생!

기존의 여주군 상징마크는 여주 쌀을 상징화하여 사용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남한강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라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여주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개발된 여주시 슬로건은 '남한강의 비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여주시의 자연 환경과 산업을 낳은 근원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한강을 여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아래 표 참조)로 표현했다.

9월 23일 여주시 출범, 시민 화합의 한마당

행사명칭	시간	장소	주요내용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10:00~16:00	종합운동장	△구기종목 및 5인6자 등 10개 종목
식전 축하공연	16:00~17:50	시청 앞 특설무대	△주민공연(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경기도립무용단
경축 퍼레이드	17:00~17:50	시내 일원 (시청중심)	△군악대 △축상장기 △취타대 △쌍룡거줄다리기 △118명 풍물패 등
개청식(제막식)	17:50~18:00	시청 앞	△118명으로 구성된 여주시민연합합창단 및
시민의날 기념식	18:00~19:00	특설무대	△유명가수 초청 경축공연
시 출범 경축 문화공연	19:00~20:40	(세종로일원)	△불꽃놀이

상징마크 및 대표 슬로건		상징마크 ▶남한강과 수려한 자연으로부터 탄생한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라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상징화. 대표 슬로건 :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산업을 낳은 근원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한강을 여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표현하였으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 남한강에서 높이 날아오른다는 의미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표현.
보조 슬로건1	남한강의 여유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산, 따뜻한 인정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모습을 표현. '여유'라는 차별적인 가치를 통해 치유와 휴양 관광도시로서의 개성을 강조하며, 여주시의 축제나 문화행사 등에 브랜드 용도로 활용.
보조 슬로건2	남한강의 선물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외부인들에게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남한강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선물'로 표현. 여주의 농·특산물 또는 관광시설 및 관광지 등에 여주시의 브랜드 용도로 활용.





여주도자기축제에서 '접시를 깨자'

9월 28일부터 10월20일, 신륵사 관광지 일원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5회 여주도자기축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이번 도자기축제는 격년제로 열리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리게 되면서 여주는 독창적이고 관광객이 참여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주 전국 접시 깨기 대회'를 올해 2회째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여주도자기축제 개최 사업에서 생산한 도자기 중 폐도자기를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25회 여주도자기축제

활용해 축제기간 동안 던져 깨면서 도자업체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액운 퇴치 등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크게 이득을 집중시켰다.



지난 해 여주도자기축제 접시깨기대회에 참여한 가수 김홍국씨가 접시를 힘차게 던지고 있다

'여주 전국 접시깨기대회' 등 특성화 여주만의 독창적 프로그램 선보여...

따라서 올해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장장 22일에 걸쳐 '제2회 여주 전국 접시 깨기 대회'를 개최해 더욱 내실화 하고 세계 속의 여주 도자기축제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관람객이 낚시도구를 사용해 도자 컵을 낚시하는 프로그램과 도자 물레를 이용한 도자기 제작시연 및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준비돼 있다.



지난 해 여주도자기축제 접시깨기대회에 참여한 배우 최불암씨

또한 쇠고를 이용해 뽀로로 등 캐릭터 모형 만들기 색칠하는 체험과 흙 쌓는 놀이 등 풍성한 체험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시행사로 여주군에서 지정한 도예명장들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옹기장, 사기장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생활도자 기획전', '노르웨이 국가 초청전' 등 국제적인 행사도 열린다.

문의: 031-887-2833

하이트진로(주) 여주 인재육성 위해 장학금 보내왔어요

지난 8월2일 하이트진로(주)는 여주의 인재육성을 위해 '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주)는 2013년 2/4분기 잡이슬 판매액의 일부인 390만원과 맥주판매액의 일부인 130만원 등 총 52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2007년 처음 제휴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총 9천1백만원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는 여주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분기별로 390만원씩 조성해 1년간 총 1천56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031-887-2583



자녀들의 '학업지도' 고민해결! 명강사를 만나보세요!

9월 6일... '기적의 영어 학습법'

우리군은 학부모들의 자녀 학업 지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으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자기 주도 학습' 강연회를 연다.

이 행사는 '기적의 영어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여주 군민회관에서 9월 6일 오후 5시부터 6시 40분까지 구근회 으뜸교육연구소 소장이 진행한다.

이 강연회는 국내 최고의 유명 강사인 구근회 소장을 초청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에 관한 정확한 이해 및 인식을 돕기 위해 준비됐다. 문의: 031-887-2582

'치매 체크'로 챙기는 부모님 건강



우리군 보건소는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인 '치매 정보 365'와 '치매 체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치매정보 365'는 누구나 쉽게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edementia.or.kr)며, '치매 체크'는 치매검사 앱으로 '스스로 검

사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중앙치매센터 파트너가 검사해드리기' 등 3가지 버전의 검사하기 기능을 지원한다.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울증 검사 문항(SGDS, 15문항)은 노년기 우울증에서 많이 보고되는 기억력 및 주의력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 시간이 짧아 활용도가 높다.

문의: 031-887-3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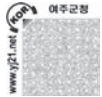
9월

거리로 나온 공연

수확 6~7시 중상프라자 분수대 광장

월 일	공연종류	공연내용
9/ 5(목)	음악	최신가요
9/ 5(목)	음악	7080 뭉게구름
9/10(화)	국악	새미아악
9/10(화)	음악	새미댄스
9/15(일)	음악	전국팔도 품바각설이
9/15(일)	국악	국악협회
9/25(수)	댄스스포츠	아람공연단
9/25(수)	음악	실버공연단
9/30(월)	음악	추억의 7080
9/30(월)	음악	7080 포크송





시민행복시대!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9월 23일 여주시 출범과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군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등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제안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으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주 주민이나 공직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과 함께 푸짐한 상금도 부여된다.

채택된 제안의 수상내역은 금상은 200만원 이하, 은상 150만원 이하, 동상 100만원 이하, 장려상 50만원 이하, 착안상은 20만원 이하로 각각 주어진다.

다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등은 제외된다.

■ 제출방법

- 여주군 홈페이지(www.yj21.net) → 민원/참여 → 정책제안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

문의 ☎031-887-2054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추석명절과 관련 선거법 위반 중점 감시·단속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점 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위반사례는 △추석선물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통상적인 수교방법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선전을 하는 행위 △등장회, 중전화 등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을 유도하는 행위 △입당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문의 ☎031-884-7866

노·사 모두 좋은 윈~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방대 출신인 L씨는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늦은 나이에 일반사업장에 취직했다. 월 100만원도 못 받는 직장이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는 것이 아쉬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고 다시 꿈을 찾게 됐다. 고용보험이 지원해 주는 근로자 수당자금을 통해 다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주 K씨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근로자들은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당지원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통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1년째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근로자의 수당지원금부터 시작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노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2분의1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실업, 노



이근태
여주군청
복지정책실장

령으로 인한 퇴직, 질병 등의 위험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사업주·근로자 모두 사회보험의 보장 효과를 알고 있지만, 당장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큰 비용 부담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당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시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의 현실은 당장 경제성장, 고용률 증대의 가시적 효과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노사 모두 좋은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9월의 농가메모	
분 야	농 가 메 모
식량작물	○ 중생종 물 걸러대기 및 물 때기 ○ 종자 받을 논 잡이삭 뽑기와 피사리 ○ 조생종 벼 수확작업 - 콤바인 알맞은 속도지키기 - 콤바인 수확 시 냇질 잘라 넣기
원예	○ 배추 아주심기 ○ 김장채소 병해충 방제 ○ 화훼 병해충 예방 ○ 시설재배 하우스 등 시설준비
과수특작	○ 느타리버섯 균기르기, 환경관리 철저 - 1일 1~2회 환기작업 ○ 태풍대비 과원관리 ○ 사과 특수봉지 벗기기와 반사필름 깔기 ○ 과수병해충방제
축산	○ 사료용 옥수수 담근 먹이 만들기 ○ 초지조성을 위한 목초파종 ○ 닭 뉴캐슬병 예방 잘하기 ○ 가축의 내부기생충 구제 ○ 젖소 유방염 예방과 위생적인 착유 ○ 가축 질병예방 소독철저
생활개선	○ 가을맞이 대청소 및 집수리 ○ 여름옷 정리하기 ○ 추석차례상 차리기와 성묘하기 ○ 김장고추 준비하기 ○ 유행성출혈열 예방



세계 '공예·회화' 구경오세요

'목아박물관 소장 세계 공예·회화전'...9월 30일까지
여주시 승격기념, 9월 22일~24일 여주시민 무료 입장

세계 여러 나라의 공예품의 기술적인 동질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며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아박물관 소장 세계 공예·회화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목아박물관 본관 1층과 지하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약 300여점의 공예품과 회화가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 전일 50%할인과 매주 화요일 무료, 장애인·저소득층 및 박물관이 인정하는 소외계층 무료 관람 혜택이 지원된다.

전시기간 중 각 나라별 전시품과 관련한 영상을 상영하고 특히 꼭두각시 인형을 조각해 보는 체험과 각 나라별 전통의상 색칠공부 외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여주시 출범을 기념해 정기휴관일인 9월 23일 월요일도 개관하며, 동시에 9월 22일과 23일 24일에는 여주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선착순 118명에게는 이번 특별전 '도록'이 증정된다.

문의: 031-885-9952~4

여주시 출범 축하

연극 '품바' 무료 공연 즐기세요!

9월 13일 오후 2시·7시 30분
'세종국악당'에서 2차례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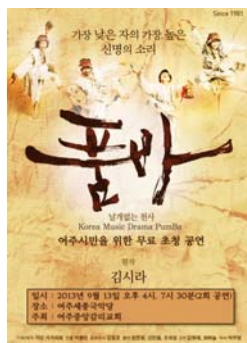
여주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유영설)는 여주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9월 13일 오후 2시와 7시 30분 세종국악당에서 연극 '품바' 공연을 실시한다.

국내 최장기 및 최다 공연, 최다 관객 수에서 한국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연극 '품바'는 지난해 10월 3천여 명의 여주시민들이 관람한 '등춘 서커스'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이다.

1981년 초연 이후 올해로 공연 32주년을 맞는 연극 '품바'는 가장 낮은 자의 가장 높은 신명 소리를 통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웃음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다. 품바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향수를 자극하고, 한 많은 역사를 묵묵히 걸어간 이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다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있고 지냈던 우리 민족의 감성이 어느새 되살아난다.

이번에 공연되는 연극 '품바'는 여주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31-883-7771~2



창업을 원하세요?

이제 "전문 교육"으로 해결하세요!

여주 여성회관에서는 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9월 23일부터 12월 13일 까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며, '가정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전문분야이다.

◎ 교육기간 : 2013년 9월 23일 ~ 12월 13일(12주 이내)

◎ 대상 : 관내 경력단절여성, 여주군민

◎ 모집기간 : 2013. 9. 5 오전9시 ~ 9. 13 오후6시 *문의 ☎031-887-3592

◎ 접수방법 : 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방문 시 접수대행)

◎ 과목

과목	정원 요일	시 간	기간 (주)	수강료 (단위원)	교재비	재료비	강사명
수업전문가2급	20 화	10:00-13:00	5	13,700	7,000	-	노영채
가정관리사	20 화	14:00-17:00	4	11,000	-	-	노영채
방과후 아동지도사	20 목	09:30-13:30	10	30,000	20,000	-	김승하/ 배희숙
네일아트 2급	16 화,목	09:00-11:00	12	36,000	10,000	350,000	서경원

'리빙 라이브러리'를 아십니까?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

나는 산복작은도서관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대신 '사람'을 빌린다. 대출시간은 30분 이내...

독자들은 준비된 도서목록(사람 목록)을 훑어보며 읽고 싶은 책(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 권의 책(사람)과 마주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다.

리빙 라이브러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 혹은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사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여주군 산복면 산복작은도서관에서 지난 2009년 개관 후 지역주민의 도서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주민과 토착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한 권의 책'이라는 취지로 독자가 어떤 한 사람과 마주 앉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농촌에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전입주민은

농사짓기, 집 손질하기, 장담그기 등을 배우고 토착주민은 작은 음악회나, 인문학 특강 등으로 재능을 나눔으로써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대어하는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드나드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전입주민들의 경우 사람책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토착주민들은 누구 앞에서 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쑥스러워하고 1:1 만남을 불편해하여 2-3명이 한 사람책을 빌리는 형태로 진행했다.

성과는 어떠했을까? 토착주민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했고, 아이들만 이용하는 공간에서 오전에는 어른들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북적거리는 산복도서관이 되었다.

무엇보다 산복도서관이 북적거리는 기간은 방학 때인데, 아침에 간식을 준비해 와서 오후까지 도서관에서 지내다가 집에 가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늘었다.

문의 ☎031-887-3316

명예기자가 간다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켜내야...”

아름다운 이포보를 묵묵히 지키는... ‘이포보 지킴이’ 조창준 회장



이포지역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 50여명으로 구성된 ‘이포보 지킴이’ 조창준 회장이 ‘이포보’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키는 일념으로 탄생한 ‘이포보 지킴이’가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이포보를 묵묵하게 지켜내고 있다.

대신면 이포보 인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포보가 생겨나면서 손발이 부쩍 분주해지고 있으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청정한 이포보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포보가 건설될 당시 환경단체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는데 그들이 농성장 인근의 장승공원에 막다 남은 음식물을 투기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당시 이포보 지킴이들이 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함으로써 깨끗한 이포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포지역의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 50여명으로 구성된 이포보 지킴이들은 지난 2010년 조창준(축산업) 회장을 주축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운 이포보를 더욱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포지역은 보가 건설되기 이전 평균 4년에 한 번씩은 수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4대 강살리기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물난리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더욱이 이포보라는 관광명소가 생겨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30년 이 넘도록 축산업을 경영해 오면서 초대 이포보 지킴이 회장직을 맡은 조창준 회장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이포보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이곳을 잘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는 사명감으로 환경정화 등 여러 일을 해내고 있다.

대신면 천서리 일대가 수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포보’라는 명소가 되면서 주말 등에는 5백~6백여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휴양지로 변신하면서 이포보 지킴이들

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포보의 주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포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여주의 명물인 천서리 막국수 소비가 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바람이 날 수 밖에 없다.

이포보 지킴이들이 앞장서 동네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지키면서 보호하니 찾아오는 손님들도 첫인상이 좋아 또 찾고 싶은 이포보가 되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에 잔잔한 감동 또한 느껴진다.

【남한강여주소식 대시면 명예기자 광명화】



‘물난리’가 없어져서 좋아졌다며 부인과 함께 환하게 웃는 조창준 회장

기후(氣候)와 절기(節氣) 백로·추분(白露·秋分)

김 병 관
이천기상대장

뜨거운 열정이 알알이 영글어 갈 즈음 아침저녁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파란하늘은 그 푸르름을 더해가고 등개구름은 높아만 간다.

이러한 시기에 맞는 절기 중 백로(白露)는 양력으로 오는 9월 7일 무렵으로서, 밤사이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들녘의 농작물이 이슬이 맺히고 가을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다.

임영옥 시인은 백로를 “하늘이 맑고 푸르며 이슬 또한 희기가 구슬 같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맑은 날이 연이어나고 일교차가 커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절기다.

이 시기가 지나면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별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는 추분이 든다.

양력으로 오는 9월 23일 경이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이 날을 계절의 전환기로 여긴다.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평화로운 들녘에 따사로운 햇살을 잔뜩 머금고 있는 수수이삭, 아리따운 처녀젓가슴마냥 터질듯한 포도송이와 툭툭 소리 내며 연

신 터져 오르는 콩깍지,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와 억새풀 등 삼라만상이 온통 풍요와 보람, 그리고 미소 가득한 하나의 작품을 연출하는 좋은 시절이다.

이즈음 날씨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써 기온은 평년(15.0~25.8℃)보다 다소 높겠으나, 강수량은 평년(176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태풍이 발생하는 주요지점인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형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한 계절이다.

혹자는 가을을 겸손의 시기라고 한다.

다 익은 벼 이삭과 같이 여름 내 흘린 땀방울이 맺어주는 조그마한 결실에도 고마움이 절로 묻어 나오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기도 잠시 동안이라도 가슴을 활짝 펴고 눈이 시리도록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 볼 줄 아는 넉넉한 가을이 되길 바래본다.

당신의 용기에
안심을 더+합니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398 정부민원대표전화



여주읍 이장협의회, 수해복구 자원봉사 '구슬땀'

집중호우로 수마가 휩쓸고 간 여주군 대신면에 여주읍 이장협의회(협의회장 박병길)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8월 12일 오전 8시, 자발적으로 모인 이장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흥천국 여주읍장을 비롯한 읍사무소 직원들은 대신면 옥촌저수지를 방문해 수해로 쓸려온 저수지변 쓰레기 청소를 실시했다.



점동면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라인댄스, 사물놀이,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동면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조재운)는 2013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매월 우리 점동 소식지도 발행하는 점동면 주민자치센터는 9월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여주군 대표로 출전한다.



가남면 체육진흥회 임원회의 열렸어요

가남면 체육회는 8월 20일 가남면사무소에서 체육진흥회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중 체육진흥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37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능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박명기 주민자치위원장, 김남신 면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0일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활동,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현황,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여주군 최우수상 수상 등을 보고했다.



흥천면 호지교차로에 바람개비 멋져요

흥천면은 8월 21일 흥천면 호지리 군도6호선 호지교차로 설치지역에 바람개비 100개를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는 행인 및 운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흥천면 관계자는 설치된 바람개비를 보며 "흥천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대비, 체육진흥회 개최

금사면체육회(체육회장 최용천, 체육진흥회 회장 김근형)는 8월 20일 면사무소에서 체육진흥회 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관련 출전 종목과 선수확보방안, 출전선수 지원방안과 체육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북면 이장회의 개최...호우피해 응급복구 노고 격려

산북면은 지난 8월 14일 면장실에서 김규창 군의회 의장, 김두호 군의회 의원, 이철구 이장협의회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중 1차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8월 23일 개최되는 제11회 산북·금사우정의 날 행사 개최, 복지대상자 기본공제액 변경 안내, 전력수급상황 경계단계발령 예정에 따른 협조 요청 등 군·면정 현안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대신면 대신면방위협의회, 훈련 참가 예비군 위문

대신면 방위협의회(의장 대신면장 권오경)에서는 육군 제55사단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후반기 항방 작개훈련에 참가중인 대신지역 예비군 60여명을 훈련장으로 찾아 격려하고 위문했다. 이날 위문은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의 실천감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대신지역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간식을 나눠주면서 격려했다.



북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깨끗한 북내면 만들기 앞장

북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심재환)는 8월 16일(금) 당우리 시가지 일원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북내체육공원 및 신남리 우회도로 구간 일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북내면 만들기 조성에 앞장섰다.



강천면 체육진흥회 개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만전

강천면체육진흥회(회장 원동학)는 8월 19일 오후 7시 면장실에서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9월 23일 '여주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 출전종목과 선수확보방안, 출전선수 지원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원동학 체육진흥회장은 회원들이 8월말까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확정키로 했다.



여주군의회 수해복구 지원에 '구슬땀'

여주군 의회(의장 김규창)는 지난 7월 25일 7월 22일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여주군 흥천면 하다리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활동에는 김규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이 참여하여 폭우로 인해 훼손된 하우스에서 난 화분 6천여 개를 이동작업을 했다.

김규창 의장은 수해 피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주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박용일 부의장

<질문> 여주~가남 간 333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상에는 2014년 완공된 333지방도로 공사가 50%에 불과한 남여주나들목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볼 때는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느 군민이 말하기를 "선거를 두어 번 더 우려먹어야 되겠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께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예산이 없던 말은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비난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군민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 조기관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

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9년 2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준공 목표는 내년도 12월까지 이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당초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남면 구간(7.5km)의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직접 면담을 통해 250억 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으나 경기도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진도에 60억 원만 확보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여주 나들목 개통으로 가남면 구간도 교통량이 증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기에 경기도 의회 원숙희, 김진호 도의원님과 함께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질문> 우리 군의 열악한 병·의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서 향후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용의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의원 58개소, 한의원이 22개소, 치과원이 2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병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로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동네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9월 23일이면 여주시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열악한 우리 병·의원 현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를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간단한 수술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석 달 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서울 가서 다시 수술을 받고 왔습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주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여주시에 맞는 종합병원을

건립,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열악한 병·의원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지역응급기관인 여주고려병원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3억 7,300만원, 응급의료기관 인력지원 보조금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증축을 위하여는 농어촌민간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20억 원을 융자 받도록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중증보건의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주고려병원 측에서는 향후 시설 증축을 위해 하루 2지구 환지 350평과 체비지 500평을 매일 추진 중으로 향후 증축이 되면 현재 125개 병상 10개과 규모에서 14개과 규모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산부인과에 분만 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금년 1회 추경에 보건시설 일지타당성 조사용역비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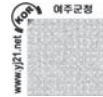
향후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질문>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향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은 정규직 공무원 723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01명, 기간제근로자 159명 등 총 9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동농복합 여주시가 되면 공무원 정수를 19명 증원할 실정에 있습니다. 여주군청은 향후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 7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면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으로 한 달 꼬박 일을 해야만 기본급과 주휴수당, 급식비, 연차 유



11면에서 이어짐

급수당 모두 합하여 119만 3천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고정급여를 책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수차례 조언을 하였습니다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23일이면 여주가 동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합니다.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고 여주시에 걸맞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 집안 식구부터 시에 걸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수를 늘려가지 말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업무능률을 배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동농복합 여주시로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우리군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일시적 행정업무가 폭증하는 시기 또는 공무원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체재리 창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무보조, 시설관리, 전산보조, 환경미화 등 각 분야에서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방침'에 따라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직무분석과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의원>

<질문>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여주대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를 우만리와 강천면 적금리에 놓여 있는 옛 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리는 영동고속도로가 편도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고속도



로 대교로서의 기능을 잃고 폐교 상태가 되었고, 지역민들은 이곳 다리를 이용하여 특히 강천면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여주를 시내권과 점봉권을 손쉽게 오가는 등의 아주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곳 대교 교량을 활용한 하이패스 시험장을 설치해 놓고 시험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전형을 부리는 등 횡포가 극심해 거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던 다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역민들은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여주군에서 인수하여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영동고속도로 섬강대교처럼 (구)영동고속도로 남한강 대교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와 잘 협의하여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여주군으로 이전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지난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방문과 건의를 통하여 여주군으로 동 남한강대교를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2010년 11월 19일 하이패스 성능시험 용도로 사용하는 관계로 여주군으로 이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5월 24일 교량 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폐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재차 방문, 주민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여주군에서 이관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현재 도로공사에서 여주군으로 이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폐쇄로 인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처하겠습니다.

동 교량이 여주군으로 관리 이관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대상 교량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유지보수비로 1년간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

<질문> 능서 1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관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마을로의 통행에도 국도42호선 및 지방도 341호선으로 우회하거나 면소재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2012년 제184회 정례회 시정 의한 능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면소재지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에 일부나마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주에서 매류, 가남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도로가 협소하고 번잡한 면소재지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지리부터 광대리 구간 2.6km 확 · 장공사에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사업은 이미 민선4기부터 실시설계 된 8개 노선 700억 원과 금년도 설계중인 번도~왕대, 현암~가산 등 다섯 개 노선에 250억 원 등 총 합하면 전체가 95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재정여건상 조기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교통량, 주변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 농로는 피양지 설치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질문> 농촌에 있는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사회화 지식기반 사회라는 다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지식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군을 보면 여주읍에 여주도서관과 세종도서관, 그리고 산북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세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농촌의 면

리부터 광대리 방향 202호선과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 102호선은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지~광대리 2.6km만이라도 개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면 여주에서 매류, 가남방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협소하고 번잡한 능서 시내도로로 우회하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능서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능서면 신지리에서 광대리를 연결하는 2.6km 구간은 농어촌도로 102호 노선으로 당초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서여주 IC에서 가남간 신속한 교통 대치를 위하여 확 ·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남여주 IC 확정에 따라 능서역세권 진입도로 0.7k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5.7km는 확 · 포장 계획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신지리부터 광대리 구간 2.6km 확 · 장공사에는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사업은 이미 민선4기부터 실시설계 된 8개 노선 700억 원과 금년도 설계중인 번도~왕대, 현암~가산 등 다섯 개 노선에 250억 원 등 총 합하면 전체가 95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재정여건상 조기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숙원 사업임을 감안,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교통량, 주변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 농로는 피양지 설치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질문> 농촌에 있는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사회화 지식기반 사회라는 다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지식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군을 보면 여주읍에 여주도서관과 세종도서관, 그리고 산북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세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농촌의 면



마다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여주군 지역에 책 있는 환경을 생활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과 꿈이 있는 도서관을 각 면마다 세울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독서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으로 독서능력 향상과 올바른 인격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면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상향력, 창의력, 통찰력, 또 리더십과 사명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 냈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해 기능과 가치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여주군에서는 군민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정보문화 교육의 산실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문화와 정보가 더욱 중요시되어 문화행정 군민의 복지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면에 책임이 편한 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현재 여주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운영 중인 여주, 세종도서관, 산북도서관 등 3개 도서관과 읍·면별로 1개소씩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9월 시(市) 출범시 읍으로 승격될 가남면은 그간 면민의 숙원사업인 가남면 공공도서관을 태평리 175-2번지 가남근린공원 인접부지에 내년도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여주군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공공도서관 분관, 또는 작은 도서관 등을 주민이용 편의에 맞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